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3. 춘천의 성시화는 비전과 섬김으로

4. 위기 속의 멋진 기회

5. 한 · 일 교류를 위한 메시야 합창단

9. 생활속 깊숙이 파고든 이단상품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10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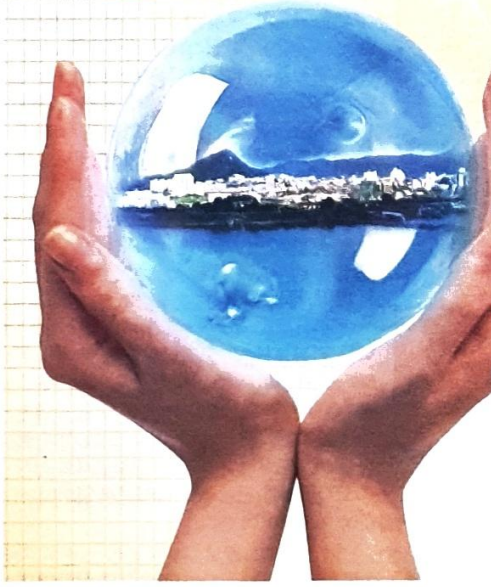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95호**

꿈꾸는 도시 춘천이여 일어나라!!

2006년 성시화 춘천선교대회

주강사 : 이동현 목사 (경기도 광주 평화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꿈을 꾸게 하소서!
변화 되게 하소서!



■ '연합 부흥회'
일시: 10월 8일(주일) ~11일(수) 오후7시
장소: 석사교회

■ '성시세미나 및 포럼'
일시: 10월 9일(월) ~11일(수) 오전10시
장소: 석사교회
월- 평신도지도자 화- 목회자
수- 전체포럼

■ '한일문화교류 합창대회'
일시: 10월 13일(금) 오후7시
장소: 중앙감리교회
초청: 동경 그레이스 합창단

■ '청소년 찬양축제 (에스컴 프레이즈)'
일시: 10월 14일(토) 오후6시30분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강사: 이유진 목사(라이즈업코리아)

■ '연합회장배 축구대회 (주관:축구연합선교회)'
일시: 10월 14일(토) 오전10시
장소: 공지천 인조잔디구장

■ '중보기도 전략세미나 (주관:YWAM)'
일시: 10월 16일(월) ~ 19일(목) 오후7시
장소: 나눔교회
강사: 이광임 사모, 정영섭 목사

■ '복음성가 경연대회 (주관:직장선교회)'
일시: 10월 19일(목) 오후7시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 '제20회 춘천연합찬양축제 (주관:월드비전)'
일시: 10월 21일(토) 오후6시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참여: 12개 교회의 성가대 및 찬양단

■ '하워드스나이더 초청세미나 (주관:IVF)'
일시: 10월 25일(수) 오전10시~오후3시30분
장소: 춘천동부교회

이달의 말씀

예레미아 33장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성시화를 위한 춘천 선교대회

기독교연합회의 10주년을 맞이하며 열리는 선교대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모든 시민의 전신자화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경제 문화의 변화를 꿈꾸며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나누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으로는 일본에 의한 독도분제, 북으로는 중국에 의한 등북공정, 내부적으로 본 북한에 의한 통일문제 등으로 탁월한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 대통령에겐 지혜를, 정치지도자들에겐 연합을, 경제인들에겐 소망과 확신을, 학생들에겐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심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고서

· 강원외고유치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한 외고유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북되게 진행되며, 이를 통한 다양한 교육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해 태권도 수련등산과 특색있는 외국어 마을의 설립 등이 이뤄지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젊음의 도시로 변화되게 하소서.

· 그리스도의 품에 춘천을, 춘천의 품엔 세계를

푸른 생명의 도시엔 거듭난 믿음의 일꾼들이 갈릴리같은 소양호반에서 우뚝우뚝 자라나고, 춘천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세계의 가슴마다엔 생명을 심으며,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고, 서는 곳마다 가나안이 되는 믿음의 꿈이 이뤄지게 하소서.

카페주소 : [illegible] 카페에서 강촌 갈보리기도원을 치세요

먹는 물과 유황온천이 있는…

강촌 갈보리 기도원

할렐루야! 강원의 기적 춘천의 자랑인 유황온천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주신 기적의 먹는 물과 유황온천물로서 국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지금 무료로 개방하고있습니다. 본 기도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춘천의 성도님들과 이 축복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베데스다연못"에 오셔서 온천을 체험하시고 전강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유황온천 내부 모습





집 회 안 내

매일 4회예배 새벽 5시30분, 오전 11시, 오후 3시, 저녁 7시30분
목요 찬양 집회 오후 8시~10시30분
금요 철야 집회 오후 9시~11시
*단체로 오시는 교회는 미리 예약하시어 온천을 체험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평 해 목사약력
전) 태종교 지도자
전)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연합회 자문위원장(4년)
1981년 장로회(합동) 신학교 입학(비교 종교학)
1985년 장로회(합동) 신학교 졸업
1987년 동 신학대학 졸업
1988년 여의도 평신도 성경대학원 졸업
1999년 목사안수임직(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장로 등 3000여명 참석)
현) 강촌갈보리 기도원장

강촌 갈보리 기도원

☎ 263-4466, 4477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1리 400-6(당림초등학교 입구)

[illegible]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30분, 저녁 7시

2005년 12월 당시 유황온천이 더져나오는 광경

추석 특별 성회 안내

강사 : 이 평 해 원장과 외부 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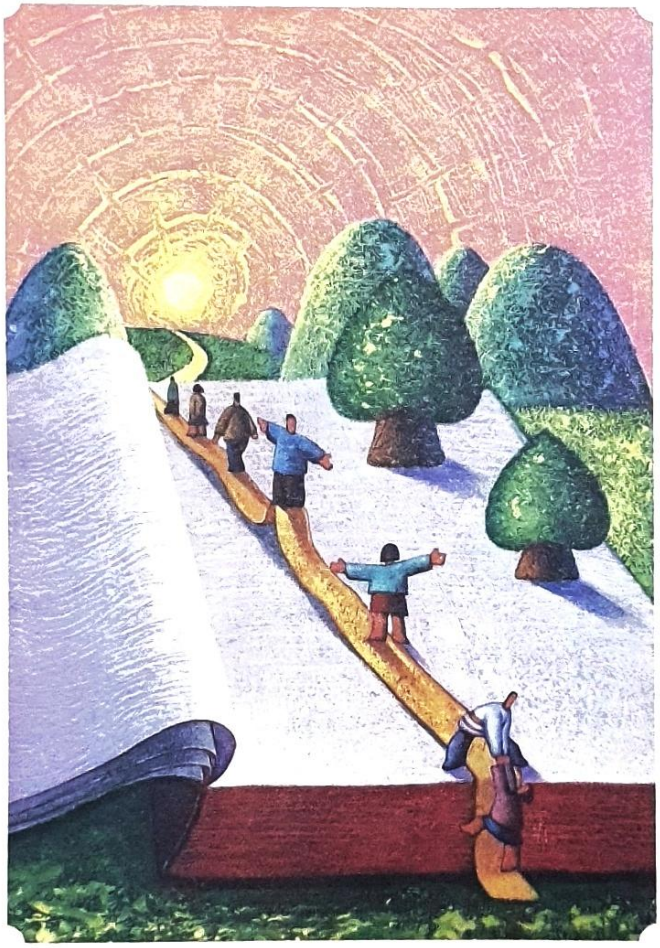
꿈의 춘천을 위한 미스바 대성회처럼!!

2006 성시화 춘천선교대회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성시화운동과 함께 도시의 진정한 복음화를 꿈꾸며 힘차게 출발한지 10년, 바야흐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린 수많은 분들의 헌신의 무릎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다.

우리 춘천을 모델로 바라보며 전국에 성시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젠 세계화를 꿈꾸는 시대가 되었지만 정작 춘천의 영적 현황은 에스겔 37장 같은 적막함과 절망만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다. 이 시대를 반전시킬 의인은 어디 있는가? 이 땅을 회복시킬 믿음의 그루터기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 비율은 오히려 떨어져가는 징후가 있고 이혼율은 급증하며 자살과 강도와 폭력들이 점점 늘어나며 경제와 문화는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믿음의 꿈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이 성회를 춘천의 미스바 성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회의 주강사로서 말씀을 전하실 이동현 목사는 전국 비전126 기도운동을 시작한 분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고 10년전 춘천을 위해 깊은 기도를 일으켰던 분으로 전국적인 부흥의 말없는 선두주자이다.

다시 한번 처음과 같은 열정을 회복하며 전 도시의 영적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성회를 준비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조차 바뀐다고 한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도시의 변화를 위한 꿈과 비전을 회복하며 처음 사랑과 같은 마음을 품고 새 술을 담은 새 부대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사료된다.

춘천은 많은 가능성과 함께 엄청난 장애물도 등시에 내포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 도전 앞에 춘천이 새롭게 변화된다면 성시화의 분고장인 이 도시를 통해 전국에 부흥의 물결이 파도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통일이 한걸음 앞서게 될 것이고 중국과 일본도 변화될 것이다. 전 동남아시아의 희망의 샘물이 되어 온 세계를 향해 솟구치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이번 성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후에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연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하는 문화축제로서 발돋움을 하며 전국의 대표적 영적축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일정들이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진행되어지길 소망해 본다.

이번 성회에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하나 되게 하소서

교단과 교회들의 벽이 허물어지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 되며 모든 교우들의 기업체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주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므로 그분의 영광이 임하고 존경받는 기독교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 춘천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를 이루는 모델도시로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도 이룰 수 있는 노하우를 갖게 되고 일본과의 화해가 이뤄지게 되며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와서 회의하고 지역을 살릴 전략들을 연구하는 국제도시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집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2. 꿈을 꾸게 하소서

춘천은 지금까지 희망을 잃고 좌절 가운데 있다.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낙후되어 가고 태권도 공원 혁신도시 등등 비전을 잃고 있는 이때, 꿈과 소망을 줄 생수의 강력한 물줄기가 필요하다.

이제 구원의 우물터이신 주님의 일하심 속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된 꿈을 안은 일꾼들이 빽빽하게 일어나며 복음적 방안으로 곳곳마다의 가난과 기근 문제에 대한 대안을 품고 선교에 대한 성공적 전략을 기획하며 에이즈 등 불치의 병 치료법과 공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와 세계를 변화시킬 믿음의 꿈을 일구는 역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3. 변화 되게 하소서

경제와 교육, 문화와 환경 등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다양한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강원외고, 외국어 마을, 태권도 수련동산, 수자원활용을 위한 연구소 설립, 오염원 해결을 위한 국방연구소 설립 등과 함께 동남아 허브도시를 위한 국제도시로서의 성장과 변화, 크리스천 문화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들과의 만남의 중심지로서 일어나며, 이를 위한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연합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이제 이 성회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실 믿음과 생명의 도시로의 변화를 꿈꾸며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축제의 장이 열리도록 힘쓰겠다.

[춘천성시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 비 타 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1동 4세대 입주 합니다



해비타트춘천지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1동 4세대를 완공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해비타트춘천지회는 고장에 있는 기업들과 번개건축에 참여한 기업, 그리고 5월부터 현재까지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 있음을 느끼는 현장입니다. 해비타트춘천지회에 많은 관심과 후원계획을 갖고 계신 여러분을 초대 하려고 합니다. 춘천에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지으신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춘천해비타트는 입주식에 관심 있는 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이 와 주셔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입 주 식]

1동 4세대 입주 합니다.

일시: 2006. 10. 19.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62-6

(상천 초등학교 뒤)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 203 - 01 - 532101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 3천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춘천성시화는 비전과 섬김으로 세워져간다

10월 선교대회 주강사로 오시는 이동현(경기도 광주 평화교회 담임)목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이동현 목사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되는 시기에 자주 춘천을 방문하여 말씀과 기도운동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다. 올해 3월 제1기 성시아카데미에서 교회연합과 기도운동에 대한 강의로 섬겨주시면서, 성시화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냉철한 비전으로 큰 감동을 주셨다. 또한 20여 년 전에 천막교회로 개척하여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평화교회(경기도 광주)는 성시화를 추구하는 성시교회로서의 모델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성시화를 외쳐 오셨던 열정과 그 구체적인 전략을 향한 꿈 이야기를 들어보자.



"성시화를 위해 썩어지는 밀알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목사님은 1990년대 중반, 한반도의 전쟁위기 앞에서 비전126 기도운동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시작과 전개과정은 어떠했는지?

1994년 국가적인 안보위기가 있었다. 그때 김상철 장로(현, 미래한국 발행인)하고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운동(시편126편)을 일으켜 이겠다는 영감을 주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한경직 · 이종윤 · 김경데 · 전용태 · 두상달 · 권힉구 · 이영배 · 김상철 등)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대표를 세우지 말자는 의견에 찬성하여 내가 총무위원으로 실무를 맡았다. 비전126은 순수기도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매주 기도모임을 가졌는데, 지도급 인사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러던 중 원단기도모임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신문에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양재동 횃불회관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1,500여명이 되었다. 이 모임으로 비전126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비전126기도운동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회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목회자는 사회를 성경으로 조명하여 주고 평신도는 목회자의 영적지도를 받아 사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비전126기도운동의 영향을 받아 밝고 힘찬 나라운동, 헌법을 생각하는 모임, 흘리클럽 등의 기독운동단체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성시화운동도 더욱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성시화운동은 한 도시를 총체적, 입체적으로 복음화 시키자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거룩한 도시를 이루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거룩한 도시를 이루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가운데 도시를 뒤흔드는 영적부흥이 있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거룩한 도시가 이루어진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영적부흥으로 도시가 한순간에 변화된 모델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도시가 있다. 완전한 성시화는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며 완성될 것이다.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더 중요시 한다. 성시화를 위해 썩어지는 밀알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승되고 발전되는 성시화의 도시모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평화교회는 성시교회의 모델교회로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사회의 교회로서 성시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사역이 있다면?

성시교회는 새로운 교회모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추구할 때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는 4가지 비전을 추구한다. 예루살렘비전, 유다비전, 사마리아비전, 땅끝비전이다. 예루살렘비전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전과 유다비전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비전이다. 사마리아비전은 민족을 복음화는 비전이며, 땅끝비전은 미전도종족을 향해 나아가는 열방을 섬기는 비전이다. 이 네 가지 비전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때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교회로서 성시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유다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사회국이라는 기관을 설립했다. 지역사회국 안에는 지역사회교육,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설립팀, 광주지역YMCA지원팀, 지역원로목회자섬김팀, 선한이웃봉사팀 등이 있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고유의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감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한이웃봉사팀에서는 광주지역을 흐르고 있는 내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봉사활동등을 하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시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평화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영감을 얻고 간다. 생각하기를 큰 교회만이 성시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시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성시화를 섬기기 위해서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과 구체적인 사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1교회 1은사 운동을 제안한다. 큰 교회가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작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운동을 계획하여 실천하자. 특히 각 지역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것을 최대한 발견하고 개발하여 그 교회만의 특색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운동들이 모여서 총체적인 복음화도시인 성시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된 지 10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기도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동역하는 연합운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도와 교회연합운동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성시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연합운동은 매우 중요하고도 기술적인 문제이다. 성시화는 총체적인 복음화운동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단체, 한 교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사용할 때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교회 1은사운동도 교회연합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실천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전도지를 연합회차원에서 만든 적이 있다.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광주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소를 수록하였다. 교인들은 자기 교회가 드러나지 않아서 실섭하겠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일이다. 지역교회의 연합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매우 극단적인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교단은 달라도 목사고시를 통합하자는 것이다. 목사고시를 통합하면 목회자들의 수준도 공신력 있게 올릴 수 있고, 고시합격 후 통합교육을 실행할 수 있어서 한교회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에 새로 부임하시는 목회자들도 선후배의식을 가지게 되고 1박2일정도의 지역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친교와 지역의 영적특성을 잘 이해하여 연합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성시화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면 성시화운동에 적극적인 비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합의하에 먼저 시행될 때 한교회 운동은 성공하게 되리라 본다.

성시화운동을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성시화운동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동참해야 한다. 잘못된 동기로 성시화운동을 이용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 더 나아가 성시화운동은 지역교회가 구체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헌신해야 한다. 순수한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게 마련이다. 교회가 많아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만약에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성시화운동 대신 사회운동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나라는 큰 자원을 빼앗기는 것이다. 1교회가 1은사운동을 추구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한국사회는 현재 고질적 양극화로 분열되어 있다. 회해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화해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가 화해자로서 쓰임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향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교회는 세상적인 힘을 내려놓고 제3자로서 말씀 앞에 서서 진리를 외치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당대에는 거의 영향을 못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1.5세대 혹은 2세대에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어 시대를 변화시키게 한다. 한국교회가 정치권력 앞에서 정치싸움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춘천선교대회에 오시게 된 소감과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를 향해 거는 기대나 바람이 있다면?

순수한 열정으로 춘천성시화운동을 기도로 섬겼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다시 춘천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한다. 성시화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3가지를 유념했으면 좋겠다. 첫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 한다. 둘째, 지역교회에는 제2의 달란트가 꼭 한 가지 이상씩 있다. 각 교회적으로 전도사명 이외에 제2의 달란트를 발견하여 지역사회를 섬길 때 이것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교회가 불의한 사회를 비판만 하지 말고 복음적 사회운동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성시화운동본부를 통해 매레를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지도자를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영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일시 : 2006년 9월 21일 장소 : 경기도 광주 평화교회
진행 : 조영춘 정재호 글정리 : 정재호



위기 속의 멋진 기회

남 진 선 대표(한국인터서브)

지난 50년간 선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편화 되었다. 과거의 그 어느 때 보다도 교회는 선교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물론 사용하는 사람마다 개념이나 생각들이 다를지는 몰라도 적어도 기독교 내에서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주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 목사도 진보나 보수에 상관없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목회에 선교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가 될 정도다.

그러나 선교가 이렇게 보편화 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교는 과거의 그 어느 때 보다 심한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과학 기술이 빌전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의 선교가 시대에 뒤 떨어진 발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더 심한 것은 세속주의가 보편화 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더 이상은 고상한 희생이나 헌신으로 생각하기 힘들게 된 것도 선교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선교사를 파송해 왔던 전통적 기독교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탈 기독교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데이빗 바렛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럽과 북미에서 매주일 평균 5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한다. 이 통계가 정확하다면 매년 2,756,000명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 한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는 데이빗 바렛트가 프랑스가 선교현장이라고 말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프랑스가 다시 선교현장과 새 이방인의 나라, 무신론, 세속주의, 불신앙과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더 심각한 도전은 이슬람의 급성장과 전통종교의 부흥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0년 사이 이슬람은 2억에서 12억으로 성장하여 세계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게 되었고, 반면에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하여 5.5억에서 20억으로 성장하기는 했지만 34%에서 32%로 줄어 든 것을 생각하면 큰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흔히 과학과 문명의 발전은 미신적이고 원시적인 전통종교를 약화시킬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난 100년 사이에 전통종교가 9억으로 늘어났고 전체 인구대비 15%가 되었다. 이것도 또한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기를 느끼게 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두 번에 걸친 중동 전쟁은 제 1 세계를 향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기독교 세계를 향한 증동의 적개심을 부추 켰기 때문에 적어도 중동에서는 서방기독교 국가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어쩌면 이것은 서구의 탈 기독교 현상과 맞물려 있는 일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멋진 기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우선은 북미의 경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이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늘어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다시 교회들이 긴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 지향적이었던 서방교회의 지속적인 선교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200년간 서방교회의 선교의 결과로 지상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가 서양종교도 아니고 더군다나 유럽의 문화를 대변하는 종교가 아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들을 보면 북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의 수가 아시아에 31% 있고 아프리카에 28% 있다고 한다. 여기서 복음주의라는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즉,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아마 아시아는 중국과 한국 및 인도를 염두에 둔 것 같고 아프리카는 중남부 아프리카를 말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두 세기 등안 유럽과 북미의 교회들이 선교에 헌신한 결과요 열매들이다. 이제 서서히 흔히 말하는 제 3세계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고 있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탈바꿈하고 있는 이 현상은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상교회에게 주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 "주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의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가 (사6:13)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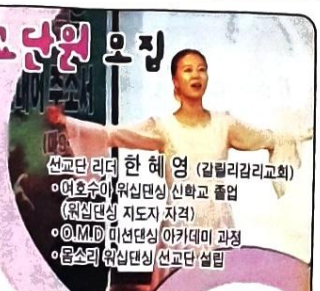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되었고, 남미의 브라질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21세기 선교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나 망상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예상하건데 당분간 한국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1억 그리스도인과 브라질의 3천만 그리스도인, 그리고 인도의 4천만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를 수없이 파송하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들이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나 인도 또는 브라질이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대국으로 부상 할 것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더욱 증요한 요소는 흔히들 이야기 하는 마지막 선교지 증동에 주님이 이슬람과 세속주의에 무릎을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 놓으셨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1천 2백만 그리스도인들과 이란의 4십만 성도들, 이라크의 5십만 성도들, 시리아의 백만 성도와 수단의 2백만 성도가 바로 그들인 것이다. 주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의 그루터기 곧 거룩한 씨가 (사6:13)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현대 선교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야 말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시대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간청해야 할 것이다.



몸소리 워십댄싱 선교단원 모집





선교단 리더 한 혜 영 (갈릴리감리교회)
• 여호수아 워십댄싱 신학교 졸업
(워십댄싱 지도자 자격)
• OMD 미션댄싱 아카데미 과정
• 몸소리 워십댄싱 선교단 설립

○예배 훈련을 통한 워십댄싱 선교훈련교육
○대상 : 워십댄싱에 비전을 가지고 선교단원으로 활동하며 복음전하기를 원하는 분.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 우석초교 정문 옆 경원대 태권도장
○문의 : 263-6022, 017-374-2440

냉 · 난방 에어컨 세적전문
제일 크리닝
에어컨 세척, 설치, 이전, 유지보수 전문
★ 시원함과 동시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정기적인 에어컨크리닝을 통해 에어컨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쾌적하고 시원한 실내 공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교회, 선교원, 어린이집은 50% 할인해 드립니다.
대표박 종 영(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시 석사동 742-15
☎262-5546 / 011-566-6769



한일 교류를 위한 동경 그레이스 합창단이 춘천에 온다

이번 성시화 주간인 10월 13일(금) 오후 7시 중앙감리교회에서 공연을 하는 일본 동경의 합창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메시야를 부르는 모임 그레이스 합창단

그레이스 합창단은 동경문화회관 도꼬로자와 뮤-즈홉에서 예수탄생 2000년 축제를 위한 메시야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성가를 좋아하는 유지들에 의해 1998년 결성되었다. 메시야를 중심으로 고전, 콘템포라리 교회음악을 주로 부르고 있다. 지금까지 4회 메시야공연하였고, 2005년에는 동경에슬극장에서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부활절 자선음악회로 공연했다. 2006년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춘천과 서울에서 '한일연합 메시야합창제'를 열게 된 것은 역사적인 일로 양국가의 큰 축복임을 감사드린다.

지휘자 시게미 미찌노리

시게미 미찌노리는 동경에슬대학기악과(호른전공) 졸업, 득일국립프랑크프르트음악대학 졸업, 안드레선교신학원졸업한 호른연주자로 전국적인 연주활동을 하다가 1986년부터는 고향인 마쯔야마 에히메대학에 교수로 활동했다. 그리고 1993년부터는 복음전도자로서 동경에서 개척전도와 함께 홈-레스(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국립방송인 NHK의 '고꼬로의 시대, 홈-레스친구들과 함께'라는 프로에 출연하여 널리 알려졌으며, 전문 음악가이며 훌륭한 지도자이다. 열정적인 신앙에서 솟구치는 그의 음악은 일본인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신쥬꾸푸른하늘교회, 히바리가오까은혜교회 목사)

피아니스트 세끼네 마사꼬히바리가오까 은혜교회 성도), 소프라노 다께노우찌 게이꼬(빈야-드 크리스챤웰로우쉽교회 성도), 알토 히로가와 메구미(쯔라누이미나미 그리스도교회 성도), 베이스 가지와라 세지로(사야마샬롬교회 성도) 등 단원들이 함께 춘천을 방문한다.

이번 한일연합합창단에는 춘천의 예수찬양 워십팀과 우두감리교회의 여성합창단과 중앙감리교회의 찬양단과 강촌감리교회의 찬양단이 함께 협연을 한다.

<메시야합창의 뒷이야기>

수상의 음악, 왕궁의 불꽃 등 호화찬란한 음악으로 알려져, 영국왕실에 증용되어, 런던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인기를 누린 G.F.헨델의 인생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다. 그의 작품 중 금자탑으로 빛나는 메시아는 그런 절정기의 작품이 아니였다. 그는 50세를 넘긴 시기에 깊은 좌절을 경험하였다. 경영하고 있던 오페라극장이 파산되고, 그는 경제적인 파탄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기듭 타격을 입은 것은 52세에 뇌졸증으로 쓰러졌던 것이다.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정력적인 창작력은 쇠퇴하지 않았으나 청중의 마음은 이미 그의 음악으로 부터 멀리 사라져 있었다. 이런 궁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감의 얻어 구세주 즉 메시야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는 이 작품으로 인생이 180도 전환되었다. 화려한 오페라의 세계로부터 성경을 주제로 한 오라토리오의 신천지를 연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직접 경험한 헨델처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중의 온갖 고뇌, 역경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희망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메시야의 음성이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며 치유해 주고, 하늘나라의 축언에 우리들을 초청해 주실 것이다. 75세에 소천한 헨델은 런던 위스터민스터 성당에 잠들어 있다.

[글 편집부]



세계적인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 춘천에 온다

세계적인 신학자 하워드 스나이더(미국 감리교계통 에즈베리신학교 선교대학원) 박사 초청 한국IVF 50주년 기념 세미나가 10월 25일(수) 오전 10시 동부교회에서 열린다.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고 강원IVF가 주최하는 본 세미나는 '미래 대안 교회가 온다'를 주제로 유기체적 교회론, 복음주의적 교회론, 하나님나라 신학에 기초한 통합적 선교의 의미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

스나이더 박사가 말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에 있다"는 주장에 반대할 목회자나 평신도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매우 다르다.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선교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교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국가에 걸맞게 세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스나이더 박사는 이에 교회의 바른 갱신을 통해 침다운 선교대국으로 변화되길 호소할 예정이다.

또 그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세속적인 도전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신실성 회복을 위해 성경적 방법으로 문화에 대응, 변혁을 이끌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제자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응답이 세상적인 성공보다 정말 중요함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선교를 위한 중대한 역할을 상실할 수도 있다. 오늘날의 유럽이나 미국교회 모습이 미래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개신교 선교운동에 관하여 그는 "그동안 세계선교 운동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보다 고차원적인 협력과 하나님의 왕국 실재 및 소망에 주목해야 한다. 교회는 현지 문화에 상황화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와 진리의 말씀에 상황화를 이뤄야 한다.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교회와 현지문화간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선교의 효율성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눅 4:18)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미래의 세계선교운동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현대 개신교 선교운동의 출발점엔 웨슬리와 진젠도르프에게 영향을 준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있다. 복음적 위임의 일부로 창조의 정의와 보호에 관한 강조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령의 신선한 바람에 대한 개방성은 선교운동의 열쇠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런 노학자의 깊은 고견에서 보듯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진정한 미래교회의 방향성과 목회사역의 지침을 가이드해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 교회의 영향력과 성도들의 수적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이 시점에 하워드스나이더 박사의 세미나는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

글 한국기독학생회(IVF) 박용한 목사

춘천 목회자 축구선교단(포이멘)

단원 모집

■ 회장: 김 병 천 목사(남산교회) 019-312-8291
■ 총무: 한 덕 현 목사(새한빛교회) 016-406-5791
■ 회계: 박 상 훈 목사(거성교회) 016-971-7133

모임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6시30분 ~ 10시
모임장소: 공지천 잔디구장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대표 이 용 운 집사
(온누리장로교회 ·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인 생



역경과 승리

춘천 명물닭갈비 이경열 장로(46세. 춘천온누리교회)의 이야기



외지(外地)사람 누구나 한번쯤은 쉬었다 가고 싶다는 공지천. 그 공지천을 서울방향으로 잠깐 벗어나는가 싶더니 우측 언덕위로 명물닭갈비 신관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춘천을 닭갈비 명물도시로 만들겠다는 이경열 장로의 꿈이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곳이다. 최근 1500여 평의 대지 위에 14억을 들여 세워진 명물닭갈비 신관. 신관건물 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운영되었던 본관, 별관, 모두가 이 장로의 기도의 열매라 할 수 있다. 명물닭갈비는 전국적으로 30여 곳의 체인점을 개설할 정도로 각광을 받았다.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업적인 은사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 장로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그 비밀을 알아본다.

주님과의 만남

이 장로의 고향은 춘천 은교동이다. 어린 시절부터 인근 은교동 성당을 다니며 카톨릭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라났다. 부모님을 따라 미사를 드리며, 첫 영성체를 받고, 견진 성사를 공부하며,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성당을 찾아가서 기도로 보낸 시절이었다. 기도할 때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고 이 장로는 회상한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 동료에게 이끌려 생전 처음 교회 부흥회를 참여하게 된다. 그때 말씀을 전하셨던 장춘근 목사(삼척침례교회)로부터 이 장로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당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큰 기쁨이었다. 그 주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주일 성수를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난과 역경

이 장로의 직장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다. 부인인 엄용순 집사를 만나 결혼하기 전에는 건설현장에서 막일도 하였고, 리어카 행상과 가정빙문, 할부장사, 그릇공장, 인형공장, 목걸이 공장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게 된다. 그때는 삶 자체가 힘에 겨워 주님의 뜻을 몰랐지만 이 모든 경험이 훗날 이 장로가 사업적인 기반을 닦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누님의 증매로 만난 엄용순 집사와 행복한 신혼생활이 이어진다. 늘 성실했던 이 장로는 엄 집사와 함께 세탁소, 양복점, 통닭집, 식당업 등을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푼푼이 근검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양복점을 내려고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만 뜻하지 않게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만다. 그동안 모은 모든 돈을 사고처리비용으로 쓰고도 모자라 빚더미에 올라앉는 고난의 시기였다. 사는 것이 힘들어 몇 개월을 울면서 아내 엄 집사와 기도하던 시절이었다.

주님께서는 사고를 통해 이 장로로 하여금 깊은 기도를 배우게 하셨고, 눈물의 기도 응답으로 닭갈비 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영감을 부어주셨다고 한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88년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항토닭갈비라는 상호로 의욕있게 닭갈비 업을 시작하였지만 당시 시국의 불안과 1년여에 걸친 강원대 후문의 제반 도로정비 사업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일푼으로 점포를 정리해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삼천동 명물 닭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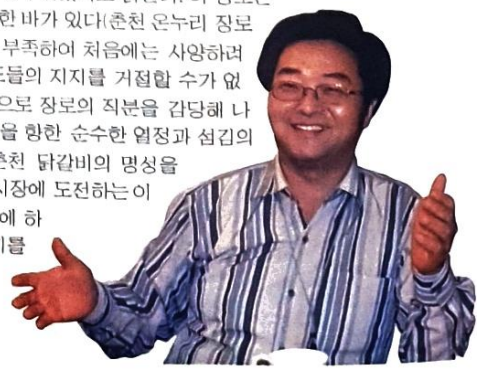
점포를 정리하고 지내던 6개월 여, 오직 기도에만 매달렸다. 하루 6~7시간은 족히 기도하였을 것이다. 교회에서 야곱처럼 한 밤을 경아하며 기도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에 주님으로부터 조자연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 '삼천등'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쳐가면서 '삼천등으로 가 보라'는 주님의 강한 음성이 들렸다. 이 장로는 지금도 이를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님의 인도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곳이 지금의 삼천등 본관 자리이다. 그러나 초기, 지인(知人)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이 장로의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허허벌판 변두리에 누가 닭갈비를 먹으러 오겠느냐는 것이다. 심지어 닭갈비 업으로 그 곳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던 사람이 여럿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우려는 사실이 되는 듯 했다. 거의 1년 등안 하루 한 테이블(Table)의 손님도 받지 못하던 날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집세를 내지 못해서 찔찔 매기도 했고, 있던 직원도 내 보내고 부부가 허탈하게 하늘만 쳐다보기도 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곳인데... 주님, 어인 일입니까?' 하고 의심하고 불평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네게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리라'고 응답하셨다. 결국 기도 가운데 힘을 내어 도전한 '플래카드 홍보전략'이 성공을 거두어 단시간 내에 '맛있는 닭갈비, 명품 닭갈비, 천연닭갈비'의 이미지로 굳히며 지금의 명물닭갈비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2005년에 인수한 1500여 평의 신관 건물도 이 장로에게는 간증거리다. 원래 신관 건물자리는 주요 매스컴에 두루 등장할 정도로 유령이 나온다는 흉가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용순 집사에게 생수가 흘러넘치는 환상과 계시로 확신을 갖게 하셨다. 또한 이 건물은 K목장을 경영하는 분이 매입하기로 이미 내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런 방법으로 K목장 주에게 나타나셔서 이 장로를 배려하도록 하셨고, 인수비용까지도 섬세하게 간섭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이 장로는 간증한다.

하나님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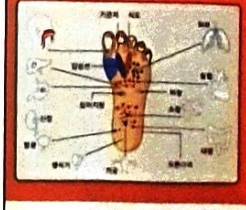
이 장로는 교파와 교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함이다. 춘천 외곽 지역의 C교회를 비롯해 여러 곳의 교회당을 봉헌, 지원 협력한 바 있는 이 장로는 남은 생애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일에 경주하겠다고 밝힌다. 이 장로는 불과 얼마 전에 장로로 임직을 한 바가 있다(춘천 온누리 장로교회, 김창환 목사). 모든 것이 부족하여 처음에는 사양하려 하였지만 목사님의 권유와 성도들의 지지를 거절할 수가 없어 겸허한 사명감 속에 두려움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힌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섬김의 정신, 노력과 성실이 오늘날 춘천 닭갈비의 명성을 이어가며 명품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이 장로. 이러한 이 장로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취재 최상도,사진 김미경]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본점
대표 전 순 천 집사 (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원적외선 기능성 수제화 엘파로스
편한 발 즐거운 인생 엘파로스가 지켜드립니다!!!

◆ 엘파로스(ELPHAROS)는 족부반사구건강법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조된 기능성 수제화입니다.
◆ 엘파로스는 평발 · 까치발 등 잘못된 발과 척추교정에 도움을 주어 발, 다리, 허리를 편하게 해드립니다.
◆ 국내 최고의 발건강관리전문가의 자문과 권위있는 정형외과원장의 추천을 받은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
* 대리점 및 취급점, 판매하실 분을 모집하오며 구입문의시 출장상담도 해드립니다.
춘천시 소양로2가 서부시장 상가1층 [http://www.sukryu.com]
이 승 철 집사 (춘천성광교회) ☎241-5143, 011-9792-0591

사람을 살리고 땅을 살리는 유기농 생명농원 만나포도원

김기천 위경옥 권사 부부(평화교회)편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 산들 바람을 맞으며 알알이 영글어 가는 포도밭을 찾았다. 신동 삼거리에서 지내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저수지가 나온다. 저수지와 맞닿은 산기슭에 '만나 포도원'이 있다. 구슬땀을 흘리며 포도작업을 하고 있던 권사 부부는 우리 취재팀을 기쁘게 맞아 주었다.

취재팀이 평소 먹는 방법으로 포도를 먹자, 대번에 김 권사는 "이 포도는 유기농이라 농약 걱정은 않해도 됩니다"라며, 껍질 채로 먹는 시범을 보여 주셨다. 필자도 과거에 포도과수원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포도에 얼마나 많은 농약을 살포하는지 알고 있다. 연간 20~25회 이상의 농약을 살포한다. 그러니 포도를 먹을 때면 긴장을 하고 포도껍질 사이에서 알맹이만 빼내어 먹곤 한다.

취재팀은 과수에, 그것도 포도에 유기농 재배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대화를 시작하였다. 우리가 먹는 과수나 채소 등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엄청난 맹독성 농약에 젖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과연 무 농약을 넘어서 유기농 재배가 가능할까? 그 기나긴 외로운 싸움의 여정을 떠나보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김기천 권사는 천안 선거리는 산골 등네에서의 어린 시절, 먼저 모친과 형님(현 우두교회 김영원 담임목사)이 큰댁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간 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4km나 떨어진 입장까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다. 군 전역 후에도 부친을 도와 농사일을 하며 교회학교를 섬겼다. 그러던 중 친환경 농업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준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다. "1986년경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아름다운 세상, 깨끗한 마음'이었는데, 그때 공해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성경을 가르치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과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농약과 화학비료를 경쟁이라도 하듯 사용하였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간)을 사랑하는 참다운 신앙의 정신이 김 권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현재 평화교회(담임 한균목사를 출석하며 두 딸을 믿음으로 키워 그중 막내는 평화교회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기도와 영향 때문이라고 말한다.

친환경농업과의 만남

전역 후 천안에서 2천여 평에 포도나무를 심고 소출이 있기까지 리비아에서 1년 3개월 등안 외국근로자 생활을 했다. 매달 보낸 돈으로 부친은 육계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전국적인 과다생산으로 판로가 막히면서 도리어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귀국 후 장인어른을 통해 지내리의 땅을 임대, 청포도를 심게 된다. 입장과 춘천을 오가며 포도농사를 하였는데, 입장에선 연간 20여회 농약을 뿌려도 병충해가 있지만, 춘천에선 한 달에 한 번 정도 농약을 사용해도 병충해에 강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주류회사의 수입농산물 사용으로 청포도의 판로가 막혀 실패를 거듭한 후 거봉 포도나무를 심게 된다. 그해 입장의 포도밭이 등해(冬害)를 입어 포도수확을 못했다. 그로 인한 가정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의 포도밭을 정리하고, 90년 10월 춘천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지내리로 이주하면서 농약을 확연히 줄이고 친환경적 농사를 시작하였다. 청포도 밭에 미리 심어 놓았던 거봉 포도가 91년부터 첫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포도밭을 오가던 손님들이 맛을 보고 또 다시 찾아왔다. 그래서 92년부터는 지역신문과 정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이른바 직판을 시작하였다. 포도 철에는 손님들의 차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함의할 정도로 대 성황을 이뤘다.

그때 회천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을 통해 자연농업중앙회에 정규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94년 2월 교육 후, 일본의 유기농 농장을 견학하면서 김 권사는 평소에 생각하던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해부터는 교육받은 대로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였다.

실패라는 손님

94년부터 친환경 농업으로 완전히 전환해 실시하면서 여름까지 별다른 병충해 없이 잘 자라던 포도가 가을 열매가 익어갈 무렵 잎이 병들기 시작하였다. 삽시간에 전 밭으로 번지자 잎을 따서 농업연구원에 의뢰하였더니 이것은 곰팡이 균으로 빨리 농약을 치라고 권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일, 결국 그해 50% 밖에는 판매를 하지 못했고, 설상가상 일찍 찾아 온 추위에 미처 나무를 묻지 못해 동해(冬害)로 대부분의 나무가 죽게 되는 큰 시련이 뒤 따라왔다. 이때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아내의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농약을 쳤더라면 면할 수 있었는데, 왜 유기농을 고집하느냐는 가슴 아픈 반대였다. 그러나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할 것을 짐작이라도 한 듯 아내 위경옥 권사도 3년 전 자연농업교육을 받은 후,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산 정상을 바라보며

얼마 전만 해도 유기농을 한다면 등네에서 바보취급을 받았단다. 소비자들도 눈에 보기 좋은 상품만 선호하다보니 농업인들은 눈앞의 효과 때문에 맹독성 농약을 점점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기농을 시작하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유기농에 대한 기술과 정보의 부족으로 실패를 거듭하였다고 슬회한다.

그래서 김기천 권사에게는 꿈이 있다.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기농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 기술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지금까지는 실패를 겪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강원대학교 농업최고경영자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산하 강원농업사업단에서 매주 하루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공부하고 있다.



현재 유기재배인증농장으로 강원도 최초로 유기농산물 가공품품질인증을 받았다. 유기농 포도즙과 포도주 등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아직도 정상에 이르지 못했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김 권사. 현재 여러 가지 힘겨운 싸움이 있지만 산중턱에서 정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버님으로부터 개척정신을 본받고, 어머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김 권사는 땅과 몸을 살리는 가나안을 건설하기를 소망한다. 뿐만 아니라 필자는 더 나아가 세계 가운데 병든 영혼과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취재 최영조, 사진 김미경]





| 역사자료

강원도 교회 창립 약사 (略史 2.)



강원기독문화연구소 대표
김 기 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 성교전서
최초의 한글 신약성경 /1887년 예수성교전서 〈나두산 목사가 쓴 "아름답고 은혜로운 한국교회이야기"에서〉



• 무스 목사
무스(茂雅各 : Moose, J. Robert ; 1864~1928)목사 (감리교)
〈미국남감리회 소속 한국선교사이며, 강원도지방개척선교사〉

1. 기독교 전래 무렵의 우리나라안, 밖 형편 (121년전)

근세(614년전) 1392년에 세워진 이씨 조선은 왕권정치로 5백여 년을 유교주의, 농본주의, 사대주의로 지탱하다가, 제26대 고종황제가 재위(在位)중반에 밀려드는 근대적 사조(思潮)를 받아드리며 봉건적 쇄국정책을 거두게 되자, 나라 밖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짐령하고, 에디슨의 백열전구 발명, 시베리아 철도 건설, 퀴리부인의 라디움 발견 등 각국에서는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있었다. 나라 안은 무오, 갑자사화, 당파싸움,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정쟁 등 내우외환으로 세계문명을 등지고 있었으나 1880년 초부터 점차 개화를 한한 문호개방이 시작되었다.

이무렵 서울에 일본 공사 부임(1880년) 유생들의 개화정책 반대 상소(1881년) 군인제도 개편으로 임오군란 발생(1882년),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양반이 장사를 하고 상민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락(1883년) 혁신정부를 세우려는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우정국 개설, 총 인구조사 발표(1884년) 등으로 개화문명이 조금씩 움트게 되었다.

1885년에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입국으로 기독교가 들어왔고, 새교육을 가르치는 배재학당이 설립 되는 등 기독교 복음 전래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문물을 알게 되는 시기였다.

2. 개화기의 강원도 실상(實狀)과 종교 및 사상적 바탕(1880년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10개도로 구분되었고, 강원도는 1395년 강릉과 원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강원도라 칭하고 원주에 수부를 두었으며 1896년 조선 말기에는 전국을 13도로 구분하고 수부를 춘천으로 정하였다고 한다.

강원도는 공자 맹자의 유림(儒林)파와 불교신앙, 풍수지리에 믈두하는 도참사상이 크게 성행하였고, 개화기에 맞서 춘천 원주등지의 유생(儒生)들이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이조말 유교사상을 지키고 천주교를 물리치자는 유생들의 주장)을 내세워 개화정책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강원도에 개화의 물결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선교사들의 헌신적 전도여행과 평신도를 통한 성경메서인 (권서:성경판매자)들의 활약 및 개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호응이 일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3. 강원도 최초의 개신교(Protestant)는 춘천의 퇴송골 신앙 공동체로부터 (1898년4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10년여 동안 서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산간 오지인 강원도 선교를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가 맡기로 결정하여 1898년 봄 서울 남송현교회(현,광희문교회) 출신 성경메서인 나봉식 정등렵이 춘천에 와서 성경을 팔며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 퇴송골(현,석사동)의 한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모여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스선교사가 춘천을 방문하여 속회를 조직함으로 춘천중앙감리교회의 창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춘천중앙감리교회 100년사 참조>

다음호에 계속

| 영혼의 양식

가이사 그 이상인 자들

마 16:24-28



이 영 규 목사
(춘천인디옥 성결교회)

가이사는 온 세상을 얻었습니다. 빌립은 그를 기념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세웠습니다. 온 세상을 얻은 가이사처럼 빌립도 그것을 탐했던 것입니다(고전 10:6).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을 맞아들입니다. 서로 영광을 받고자 함입니다(요 5:43-44). 사람이 사악한 자에게 속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살후 2:9-12).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지혜롭게, 강하게, 고귀하게 합니다(갈 6:13; 고전 1:26-29).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람에게서 난 일에 맛을 들이고, 세상에서 난 일을 사랑하게 되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 안에서 감건 합시다(히 12:28; 딤후2:1).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고전 1:9)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갈 5:24; 6:14).

하나님 왕국의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마 16:24-26)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배를 위해서 살며, 수치스런 영광을 추구하며,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을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빌 3:18-19; 롬 16:18).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마 10:38). 조국 교회와 나의 믿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해악한 친교는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 있고 죄짓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즐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고전 15:58).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미리 정하셨습니다(롬 8:29; 엡 1:5). 우리(사람)가 얼마나 고귀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려고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로 세상은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정복자 그 이상이보다."(롬 8:37)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파멸시키신 그리스도(히 2:14)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 하나님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아멘.

춘천성시신문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원 기독문화 연구소

• 강원도 기독교전래약사 편찬
• 강원도 교회 창립 역사 정리
• 재래문화변천, 기독문화발전, 악습
• 기독교, 이해도관련, 설문조사, 실행
대표 : 김 기 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전, 삼척도서관장
전, 기독교타임즈지사장
200-010 춘천시 육천동 6-7(육천5길 56호)
Tel. 033-254-7367 / Fax. 033-241-5211
amenkim@yahoo.co.kr HP.011-9901-3511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원장:김 성 호 목사)
■ 설립 개원 예배
2006. 10. 16일(11시)
■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Y신협, 기독교방송국 3층)

실생활 깊숙이 파고든 이·단·상·품

모르고 구입하면 이단활동 돕는 꼴

삼육두유, 맥콜, 윤선생영어 등 유명상표 수두룩
롯데제과 제품 일부도 OEM방식으로 생산 유통

■ 이단상품, 어떤 것이 있나?

롯데샌드와 롯데아체크레커가 이단단체인 천부교(전도관)에서 롯데제과에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되어 롯데제과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은 몇이나 될까? 각종 이단단체들이 정통교회의 이단시비와 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가 막대한 자금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관련기업을 세우고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든든한 경제력으로 인해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상품 구입 시,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잘 파악하여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단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단대처이기 때문이다.







▲ 좌로부터 안식교 기업체인 삼육식품의 제품들, 천부교 시온식품에서 생산하는 두부, 통일교 기업인 (주)일화의 생신 제품들



▲ 천부교 시온 제품들을 판매하는 지점인 시온쇼핑

■ 통일교

▲음료제품: 벡콜, 천연사이다, 망고망고, 알로에마을, 푸른매실, 제주감귤, 참우롱차, 초청탄산수 등. ▲OEM제품: 칠성사이다, 레쓰비, 투데이스 등총하초, 초록매실, 초록사이다, 속청액 등. ▲인삼/홍삼제품: 고려인삼차, 고려인삼농축액, 고려인삼캡슐골드 등. ▲의약제품: 이부에프, 이누렉신, 잔타딘, 가스파, 까스일청수, 일화십전대보탕 등. ▲기업체: (주)통일(자동차부품, 기계류), 한국와콤전자(유통업), 금강산국제그룹(금강산국제무역개발, 금강산국제관광, 금강산개발, 양각도 호텔, 주일고려무역, 고려상업은행), 무빙서비스 익스프레스(이사전문기관), (주)통일실업(신사복:크리스찬베르나르알베르토) 등. ▲학교 및 교육: 선화여중,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기독학생연합회(크리스천학생 포섭) 등. ▲스포츠 및 레저: 성남일화축구단, 일성콘도, (주)일성레저, 부곡콘도, 용평리조트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일대 300만평 '국제 해양관광레저단지' 개발 중

■ 구원파

구원파는 (주)세모가 생산하는 전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인 세모스쿠알렌, 세모알콕시글리세롤 등이 있다.

■ 안식교

안식교의 대표적인 사업체로 삼육식품이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안식교가 운영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총 28개, 재학생수는 15,200여명이다. 병원으로는 서울위생병원, 치과병원, 부산위생병원, 위생한방병원, 에덴요양병원 등이 있으며, 특히 SDA영어학원은 안식교에서 운영하며 강사진은 거의 안식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시설: 두암종합사회복지관(광주시 북구 두암동),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강원도 동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서울 동대문), 정읍시노인종합복지회관(전북 정읍), 평화의 동산(충남 금산). ▲사업체: 삼육식품(충남 천안시 직산), 삼육식품 봉화공장(경북 봉화)

■ 몰몬교

객실마다 성경과 몰몬경이 있는 메리어트 호텔. 미국의 세계적인 호텔체인인 메리어트 호텔의 CEO 제이 윌라드 메리어트가 믈몬교도이기 때문에 세워졌으며 이는 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일관되게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서울과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방송인겸 국제변호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버트 힐리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도 몰몬교도이다.

■ 여호와의 증인

윤신생 영어교실의 대표(윤군)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천부교

(주)한일봅산, 시온합섬(양말, 화장품 등)과 시온식품, 그리고 일반매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명불 무부와 발효음료 런이 있다. 전에는 한일봅산이었으나 지금은 생산지의 표기명이 붙어있지 않고 신앙촌이라고만 되어 있다. 또한 OEM 방식으로 생산되어 롯데제과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롯데샌드와 롯데아체크레커가 있으며, 교육기관으로는 부산 기장에 시온실업고등학교가 있다.

■ 대순진리회

서울을 비롯, 경기도 일대에 대진 고등학교와 대진대학교(경기도 포천)가 있으며 부산에는 장전동에 대진전자정보고등학교가 있다.

(자료제공 : 현대종교)

예 양

깊이 있는 사람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숨진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도종환) 사람들은 물을 보고 그 물에 뜰 수 있는 배가 어떤 배인지를 압니다. 물의 저지에서 보면 그 물이 몸을 수 있는 배가 따로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은 그 깊이만큼 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얕은 물위에는 종이배를 띄웁니다. 호수에 띄우는 배는 유람선입니다. 그러나 깊고 넓은 대양에는 보다 큰 배를 띄웁니다. 물의 깊이와 넓이가 배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가슴이 용달샘 같으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이 대양 같으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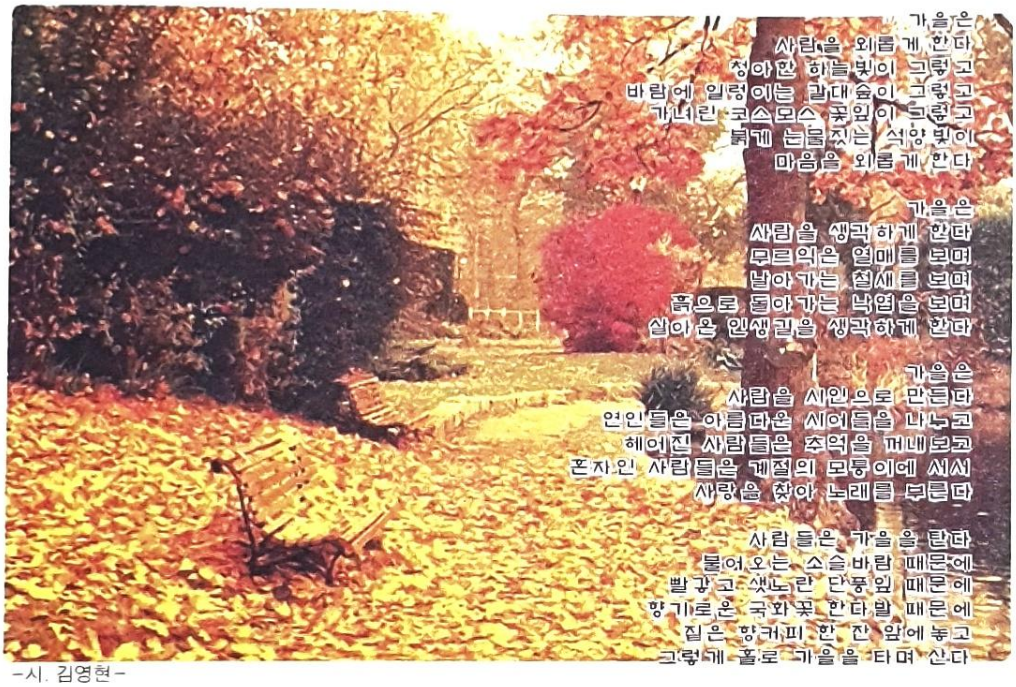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서부감리교회	복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임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엔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강원기독문화연구소	김 기 태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칠
김 영 명	민 병 위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흥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학 규
이 병 언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포·토·에·세·이

가을은



가을은
사람을 외롭게 한다
청아한 하늘빛이 그렇고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숲이 그렇고
가냘린 코스모스 꽃잎이 그렇고
붉게 타들어진 석양빛이
마음을 외롭게 한다

가을은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
무르익은 열매를 보며
날아가는 철새를 보며
흙으로 돌아가는 낙엽을 보며
살아온 인생길을 생각하게 한다

가을은
사람을 시인으로 만든다
연인들은 아름다운 시어들을 나누고
헤어진 사람들은 추억을 꺼내보고
혼자인 사람들은 계절의 모퉁이에 서서
사랑을 찾아 노래를 부른다

사람들은 가을을 탄다
불어오는 소슬바람 때문에
빨갛고 샛노란 단풍잎 때문에
향기로운 국화꽃 한다발 때문에
짙은 향커피 한 잔 앞에 놓고
그렇게 홀로 가을을 타며 산다

-시. 김영현-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춘천중앙성결교회 류 현 구 안수집사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가끔씩 맥 빠진 소리를 하는 때가 있다. 육신이 약해서 병들어서 물질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들을 많이 하지만 믿음이 떨어져서라고 말하고 싶다. 주님은 무식한 베드로를 쓰셨고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바울도 일꾼으로 쓰신 것을 보면 골고루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쓰셨다.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 쓰던지 주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면 주님은 사용하신다.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지난 1997년 1월 1일 교통사고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갈비 다섯 개가 골절되고 장 · 폐 · 간 파열, 팔다리가 골절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16일에 치료비가 무려 1천4백만원이 나왔다. 하루 백만원 꼴이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폐암4기로 천국에 가고 아이들과 나만 남았다. 누구하나 기댈 사람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8개월의 병원생활 등안 성경을 읽고 친구 되신 주님으로 인해 마음만은 늘 든든했다. 그리고 눈에 띄게 회복이 빨라 당당하게 병실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었다.

퇴원 후 주님은 무료컴퓨터교육을 받게 하고 강원서지방 남진도회 서기로 쓰셨고, 지난해에는 가톡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서지방 남진도회 83개 교회의 남진도 회장직을 맡겨주셨다. 10년이 지난 이 순간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저 기쁘고 즐겁다. 비록 전과 같이 복수입은 못해도 직장을 허락하셔서 학원차를 운전하며 아이들과 함께 힘 수도 있고 지병인 당뇨병도 이제는 정상이 되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노인대학 봉사, 태신자 전도운동, 불우시설 봉사 등 참으로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다. 비록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고 늘 감사하고 즐겁기만 하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나를 주님은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바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모든 분야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특별히 춘천의 성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모든 기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행사안내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예방인형극 '신 콩쥐팥쥐' 공연

시군명	공연일시	장소
춘천	10.17(화) 13:00	어린이회관
영월	10.10(화) 10:30	영월군문화예술회관
평창	10.13(금) 10:30	평창군문화예술회관
철원	10.27(금) 10:30-12:00	고석정 내 전적관
화천	10.24(화) 13:00	화천문화예술회관
인제	10.20(금) 10:30	인제문화관

문의: 국번없이 1391, 244-1391-2

▣ 월드비전 ▣

♣ 부모교육
1. 일시: 10월 12일, 19일, 26일 (목)
2. 장소: 복지관
3. 내용: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태도, 언어, 행동 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 집수리 실시
1. 일시: 10월 14일(토)
2. 대상: 재가어르신 1-2 세대
3. 내용: 재가독거어르신 대상자 중 주거 환경 개선

♣ 제25회 경로잔치
1. 일시: 10월 17일(화) 오전 10시
2. 장소: 복지관 3층 강당
3. 대상: 재가어르신 및 지역 어르신

※ 제20회 춘천연합찬양축제
1. 일시: 10월 21일(토) 오후 6:00 - 9:00
2.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3. 내용: 지역내 12개 교회의 성가대 및 찬양대가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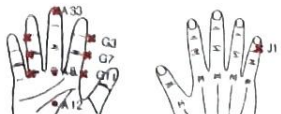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 리더회 나들이
1. 일시: 10월 30(월) ~ 11월 2일(목)
2. 장소: 일본
3. 문의: (033)254-7244

건강상식

▣ 수지침 : 소아의 급성경기 ▣

• 제1처방 : G3, 7, 11에서 시혈침으로 피를 빼준다. A8, 12, 16에는 서암봉을 붙여준다.

• 제2처방 : A33, J1에서 시혈을 해준다. 그리고 A8, 12, 16을 지압한다. 서암봉을 붙여준다.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늘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88052
우체국 31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중학장로기의
DTPi 디티피아
- 인 쇄 : 명함, 스티커, 전단, 포스터, 카다로그, 각종복지, 서식, 달력
- 판 촉 : 행사용 달력, 손수건, 넥타이, 각종패용품, 행사기념품(타올/수건등)
- 엠스코 : 각종현수막, 신사업현수막
"우리만이 내일의 길이고 진리고 빛이 입니다"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 033.263.5152
Fax :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춘천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예수 향기를 !!
교회현수막 전문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만 쳐도 됩니다.
천일기획(디자인)
T.255-5722 F.256-5722

사 설



감사를 표현하는 풍성한 계절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요즘 남에게 도움을 주었다가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하업관계로 미국에 잠시 갔을 때 알렉스 강이라는 분을 만났다. 말이 달변이고 재미있는 교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시니까 공격대상이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양해하세요"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천주교 신부가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 성직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무 고마워서 다음날 이발소를 찾아가서 좋은 양주 세병을 선물하였다. 이번에는 감리교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 갔다. 이발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 역시 성직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리교 목사님은 너무 고마워서 다음날 이발소를 찾아가서 큼직하고 좋은 귤 세 개를 선물하였다. 이번에는 장로교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갔다. 이발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 주인이 성직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시 장로교 목사님도 그 다음날 이발소를 찾아 왔다는 것이다. 알렉스 강은 나에게 "무슨 선물을 가지고 찾아 갔을 것 같습니까?"하고 질문을 하였다. 나는 "글쎄요?"하면서 알렉스 강의 얼굴 쳐다보았다. 답을 말하기 전에 오해가 생길까봐 그런다고 하면서 또 다짐을 한다. 이야기 듣는 상대가 신부이면 세 번째 사람이 신부가 되고 감리교 목사면 감리교 목사가 되고, 항상 이야기 듣는 사람이 세 번째 이발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이다. 내가 "그래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하고 묻었더니 "이발할 목사 셋을 데리고 왔지요"하는 것이다. 웃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며 우리의 즐거운 명절 중추절이 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계절이다.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도 뇌물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며, 스승님께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그리고 형제와 이웃에게 감사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계절이기를 바란다. 무엇을 바라고 부탁하려고 하지 말자.

근간에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쩐지 이발할 성직자 셋을 데리고 오는 것과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여 마음이 편치가 못하다. 진정으로 감사한 일은 감사 할 줄 알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랑운동)
1) '노방찬양'
일시: 10월 14일(토) 오후12시~2:30 장소: 명동
2) '목동모임'
일시: 10월 21일(토) 오후6:30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문의: 244-5400/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세계 기도의 날'
일시: 10월 10(화) 문의: 254-5776
2) 'MP내 컴퍼런스'
일시: 10월 16일(월) ~ 19일(목) 대상: 간사
3) '옴 커밍데이'
일시: 10월 28일(토) 오전11시 장소: CCC 아카데미하우스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브르스릴라(중보기도)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 자매님)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3)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일시: 9월 24일(주일) ~ 10월 23일(월)
기도모임문의: 이선희 간사 010-7152-0135

◆IVF
1) '한국IVF 50주년 전국 이사대회'
일시: 10월 20일(금) ~21일(토) 장소: 옥천 좋은동산
2) '50주년 기념 강원지방회 말씀사경회'
일시: 10월 25일(수)~27일(금) 오후7시 장소: 강원대학교
강사: 정주벽 목사(강원71학번, 은총교회)
3) '강원IVF 37주년 가족의 날'
일시: 10월 28일(토) 오후6시30분 장소: 춘천 IVF 회관
문의: 252-5200

◆JDM
1) '창립 29주년 감사축전'
일시: 10월 3일(화) 오전10시부터 장소: 강원대 백령문화관
2) '간사 연차별 교육'
일시: 10월 16일(월) ~19일(목) 장소: 세계제자훈련원
3) '중교개혁 세미나'
일시: 10월 26일(목) 오후7시 장소: 세계제자훈련원
문의: 252-3192 / 011-9058-3192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교사강습회'
일시: 9월 11일~12월 4일(매주 월 12주간) 오전반 10시, 저녁반 7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

◆GBT
1) '리더십 세미나-팀빌딩'
일시: 10월 10일(화) 오전9시 장소: 미정
강사: 유제필 소장(JP 컨설턴팅 대표)
2) '위클리프스쿨 오픈강의2'
일시: 10월 30일(월) 저녁7시
장소: 강남온누리교회 (퇴계동 우성A앞)
강사: Karen선교사(통역: 이세림 선교사)
3) '청년선교특강'
일시: 11월 3일(금) 오후7시 장소: 에덴교회(법몽드 근처)
강사: 정빈영 선교사(WBT AD(퀴임자))
문의: 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1033@gbt.or.kr]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몸소리워십댄싱선교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7-374-2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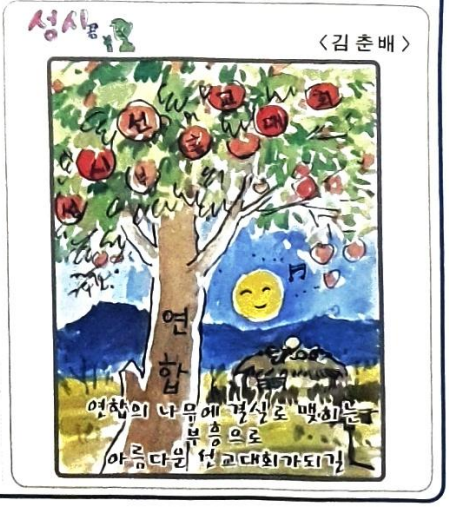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018-315-7579 지광이선교회(신광교회 유근일 목사)

◆부부학교 춘천1기 모집
일시: 10월 14일~11월 4일 매주 토요일 오후5시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문의: 이재분 019-223-3215

◆춘천홈리클럽
1) '월례기도회'
일시: 10월 16일(월) 오전6:30 장소: 강촌감리교회
2) '성시화청단 단원모집'
문의: 이학규 017-370-4831, 김영명 011-9792-5775

◆성시화를 위한 2006 춘천선교대회
주강사: 이동현 목사(경기도 광주 평화교회)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문의: 256-1260~1

1) '부흥회'
일시: 10월 8일(일) ~11일(수) 오후7시 장소: 석사교회
2) '성시세미나 및 포럼'
일시: 10월 9일(월) ~11일(수) 오전10시 장소: 석사교회
3) '한일문화교류 합창대회'
일시: 10월 13일(금) 오후7시 장소: 중앙감리교회
4) '연합회장배 축구대회(주관:축구연합선교회)'
일시: 10월 14일(토) 오전10시 장소: 공지천 인조잔디구장
5) '예스컴 프레이즈'
일시: 10월 14일(토) 오후6:30 장소: 중앙성결교회 소예배실
강사: 이유진 목사(라이즈업코리아)
6) '기도전략세미나'
일시: 10월 16일(월) ~ 19일(목) 장소: 나눔교회
강사: 이광입 사모, 정혜섭 목사
7) '복음성가경연대회(주관:직장선교회)'
일시: 10월 19일(목) 오후7시 장소: 동부교회 소예배실
8) '제20회 춘천연합찬양축제(주관:월드비전)'
일시: 10월 21일(토) 오후6시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9) '하워드스나이더 초청 세미나(주관:IVF)'
일시: 10월 25일(수) 오전10시~오후3:30 장소: 동부교회



!!! 하나님의 자녀들을 흘륭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 !!!

아가피아 독서고사과정(자기개발과정-초급) 강원 2기 개강
-10월 31일(화)은 공개세미나로 개강 첫날은 공개강좌로 진행합니다

일시와 장소 : 1차) 2006년 11월 7일(화) 오후 7시
베드로 선교센터 5층 추수홀(241-9939)
2차) 2006년 11월 8일(수) 오전 9시
베드로 선교센터 5층 추수홀(241-9939)

인간변화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기회!
〈꿈의 학교〉설립으로 인정받은 아가피아 학습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할 대상
1) 자기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2) 아가피아를 통해 홈 스쿨 교사를 하고 싶은 분
3) 가정에서 자녀를 영재와 인재로 양육하고 싶은 분
4) 자신의 기관(교회 및 학원)을 학습 공동체로 운영하고 싶은 분

★이 과정에 참여하신 후 기대효과 및 특전
1) 삶의 질 향상 : 자기 변화의 경험과 개발 과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기대
2) 능력의 향상 : 인간의 잠재 능력 개발 방법과 자녀들을 인재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성과 능력을 기대
3) 수료증 및 자격증 취득 : 본 과정 이수자는 본 원에서 홈 스쿨 자격증을 수여
4) 독서 교사과정(2급 과정 -독서스쿨 / 독서당 교사자격증 취득) 입학 자격 부여

★ 수강등록 안내
» 등록방법 : 우리은행 557-011649-13-101 (주) 드림교육으로 온라인 입금 후 전화로 등록 확인
인터넷으로 원서 제출 (http://www.agapia.or.kr 아가피아 인재개발원)
» 교육비용 : 20만원
» 교육기간 : 9월 7일(목) ~ 10월 26일(목) (8주간) 오후 7시부터 2시간 40분간
» 문 의 : 062-971-3952 (본부 사무실) 011-372-9100(김성호 목사)

아가피아 인재개발원 강원지부 (지부장 : 김성호 목사)

광 고

춘천MPS 개강



제11기 세계선교관학교(MPS)는 9월 2일(토) 오후3시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9월 3일(토)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하여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제로 12주 동안 강의가 진행된다.

춘천선교대회 준비위원회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상호 목사)는 2006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기도하고 있다.

레노바레 축제



제2회 레노바레(새롭게 회복하다는 뜻)축제가 9월 9일(토) 오후 7시 갈릴리교회(담임:최영조)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약 200여 명의 마음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술, 태권무, 위십, 단소합주, 리코더 연주, 무언극, 영화상영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MPS 개강



춘천홉리클럽(회장:이학규)은 춘천성시화를 위한 월례기도회를 9월 18일(월) 오전6시 춘천명성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광준 춘천시장과 허천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홉리클럽 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강원백두대간 횃불기도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용상 목사)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강원도민 사랑운동 실천을 위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를 9월 3일 원주치악체육관에서 1만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강원도 지역교회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강원도내 18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깃발이 육군 36사단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체육관으로 입장을 시작으로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는 1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강원도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전달했으며, 별도로 모은 수재민돕기 성금과 결식아동 지원금을 각각 김진선 강원도지사와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부산의 사랑의 손길





부산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정필도 목사)는 사무총장 손규하 목사를 단장으로 수재민을 위한 긴급구호단을 조직, 성시화 관계자들과 함께 9월 5일(화) 춘천을 비롯, 인제 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부산지역의 교회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된 성금 4천700여만원 중 2천200여만원을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성금은 수해를 당한 춘천 춘성침례교회, 인제 덕산리교회에 전달하였다.

CCF 선교특강



춘천 CCF는 9월 13일(수) 오전 7시 춘천사랑의교회에서 선교 특강을 열었다. 목회자와 선교단체간사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서브 대표 남진선 선교사는 '중동선교의 상황과 세계선교의 방향'을 강연하였다.

영성집회



춘천청년포럼이 주최한 '영성집회'가 9월 16일(토) 오후7시 안디옥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100여명의 대학·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 송재근교수(토라사관학교)가 강연을 하였다.

춘천선교대회 준비기도회



춘천홉리클럽(회장:이학규)과 춘천장로연합회(회장:박한병)는 성시화를 위한 2006 춘천선교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모든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소망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수료식



춘천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가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7기 아버지학교는 9월 23일(토) 오후 5시 춘천 제일장로교회에서, 3기 어머니학교는 9월 27일(수) 오전 10시 석사교회에서 수료식이 각각 진행됐다.



춘천시 장로교연합회 부흥성회

일시 : 2006년 10월 29일(주일) ~ 11월 1일(수) 오후 7시
장소 : 춘천동부장로교회

※종교개혁주일예배 10월 29일(주일) 오후 7시
강사 : 오덕교 총장(합동신학대학교대학원)
※연합 부흥성회 - 10월 30일(월) ~ 11월 1일(수) 오후 7시
강사 : 서달수 목사(신촌중앙교회 공로목사)

세미나 제 직 세미나 : 10월 30일(화) 오전 10시30분
목회자 세미나 : 11월 1일(수) 오전 10시30분

문 의 회장 지용찬 목사(은혜교회) 011-372-6200
총무 지태성 목사(춘천교회) 011-9010-5393

"손잡고 함께 가는 여러분의
Y신협이 되겠습니다"

본 소 : 1층 Y신협, 2층 기독교연합회, 3층 CBS
033-255-1007
강남지소 : 퇴계현진에버빌 2차 옆
033-261-1002

춘천와이신용협동조합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김춘배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춘천성시신문사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